

## 장성군민, KTX 장성역 정차에 '환영' 일색

운행 재개 기념 상·하행 체험, 귀경 예매 줄이어  
내달 16일 KTX 재정차 축하 대대적인 기념행사

중단 4년여 만에 고속열차(이하 KTX)가 다시 장성역에 정차하게 되면서 장성군과 역 주변 상가가 들쭉고 있다.  
장성역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님이 장성역에 KTX가 다시 멈춰서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물어 보신다"며 "정차 재개를 기념하기 위

한 목포-장성 간 상행과 장성에서 출발하는 하행 체험, 그리고 귀경길 예매가 줄을 잇고 있다"는 말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전했다.  
장성역의 정차 재개는 9월 16일로 확정되어, 운행일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 8월 16일부터 예매창구가 열렸다. 장성역 임대원 역장은 "장성역은 인

근 광주송정역에 비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 무료주차라서 비용부담도 없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인근 집단 수완지구 등 광주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KTX의 장성역 정차 재개가 확정되자, 장성역 주변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장성역 인근에서 수 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철 씨는 "KTX 정차가 중단됐던 2015년 이후 저를 비롯해 역 주변 자영업자들이 큰 상실감을 느껴왔던 게 사실"이라며 "4년 만의 KTX 재개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숨통이 트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만큼, 고객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X의 장성역 정차시간은 목포행 12시 20분, 19시 55분, 서울·용산행

06시 29분, 17시 42분으로 총 4회 정차한다.  
서대전 경유 노선(서울·용산-오송-서대전-익산-김제-장성-광주송정-목포)이라 장성에서 서울까지는 약 2시간 50분 가량 소요된다.  
장성군민들은 "장거리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장성역에서 KTX를 타고 환승 걱정 없이 한 번에 서울까지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며 "KTX 장성역 재정차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행



복한 삶을 확보하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가 적지 않은데 정차횟수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9월 16일에 군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역 주변과 광역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KTX 재정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박종영 기자

## 보성군, 울포해양관광단지 여름 특수 잡았다

역대 최고치 경영수익...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



보성군 울포해양관광단지가 여름철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피서철 13만여 명의 관광객이 보성을 찾았으며 보성군은 지역 시설

운영으로 6억 8천만 원의 수익을 내며 역대 최고치의 경영수익을 경신했다. 적자운영 이마지가 강했던 관공서 운영시설에서 보성군은 탁월한 경

영수익을 내며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남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수욕장을 개장과 울포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센터 등 다양한 시설물과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등의 탄탄한 콘텐츠가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회전 권역 보성군 지역 시설 방문객은 총 29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오픈한 울포해수욕장센터가 24만 명을 유치하며 울포관광단지 성장을 견인하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성군은 회전권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사계절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은 봄·여름·가을에 관광객이 보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해양레포츠 교실, 보성 특산품인 차를 이용한 차운명상 프로그램과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 교실 등의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여자비치발리볼 대회, 여름바다의 낭만을 더해줄 음악회와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의 볼거리를 보냈다.  
보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서진석 팀장은 "운영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 보성의 위상을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 올해는 태풍 등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뜻깊다"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시설과 안전한 환경으로 보성에서의 즐거운 여행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인규일 기자



## 함평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2019국향대전 준비에 한창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에 한창이다.  
21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15기 회원 200여 명이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개인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국향분재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국화동호회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는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등 각각 4개 반으로 나눠 3주마다 국향분재 만들기, 취미 국화 기르기 등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또한 국향전문가로 정평이 난 고찬훈 농촌지도사를 중심으로 멘토-멘티

제를 시행, 국향분재와 관련한 전문적인 이론 및 기술을 전수받는다.  
올해 교육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을 통해 만든 국향분재 작품들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관내대행은 "더위 속에서도 국향작품 전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국화동호회원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회원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올해 국향대전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적조 예비주의보 발령...해양수산과학원, 전남 해역 예찰 강화

고흥 봉래면 염포~여수시 남면 안도 동측 '주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일 오후 4시를 기해 적조 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관리 지도에 나섰다.  
최근 남해안에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적조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수온인 섭씨 24~26도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생물인 규조류가 감소,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해역은 고흥 봉래면 염포~여수시 남면 안도 동측 종단이다. 적조생물은 여수 백야도 동측 해역에 코클로디니움(30개체/㎖), 매조디니움(1000개체/㎖)이 혼재해 출현하고 있다.  
적조가 어류양식장에 유입되면 적조생물이 분비하는 점액으로 아가미 호흡기능이 저하돼 폐사를 일으키게

된다.  
양식장에선 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을 이용한 수류방제, 산소공급장치 가동, 먹이공급 중단, 적정 사육밀도 유지,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에 나서야 한다.  
도해양수산과학원은 4월부터 적조 발생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예찰반을 전남 전 해역으로 확대해 집중 예찰을 펼치고 있다. 예찰 결과는 SNS 등을 통해 어업인과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